

전주단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

-강릉단오제와 전주단오를 중심으로-

유영수**·이채현***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주단오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로 개발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인 강릉단오제와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 보다 나은 축제로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지역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SWOT 분석을 활용한 접근 과정을 거쳐 향후 지역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WOT 기법으로 문화 자원의 측면에서 전주시를 분석하여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전주시의 문화 자원 현황을 수집하였다. 그렇게 수집된 문화 자원과 관광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불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이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현재 국내 자료 중 전주단오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현저히 부족하여 결과에 대한 담보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주요어 : 전주단오, 지역축제, 문화콘텐츠, SWOT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단오제는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민속예술로, 과거에도 지역 경제 및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다. 단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빠르게 변모시켜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예술적 콘텐츠가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단오제를 지키고 알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한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 자인, 법성포 세 곳과 전주를 포함하여 단지 네 곳으로 극히 일부 지역인데, 특히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에 비해 전주는 문제점과 개선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인 강릉단오제와 비교하여 전주단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단오축제는 여러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이라 볼 수 있다. 단오제가 지닌

* 이 논문은 2017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여 수정, 보완 한 것임.

** 상명대학교 예술학 박사, puri97@hanmail.net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leeleeeseul@naver.com

예술적 가치가 현대에 이르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은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입증 가능하다. 한 예로 신라 영웅 김유신 장군을 위시로 하는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 690억 원과 2011년 96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되었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천명을 넘어섰다(강릉시의회, 2016). 현재 강릉단오축제의 2018년 기준 입장객 규모는 109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들 입장객의 실질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75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17명으로 추정되어(강릉단오제보고서, 2018) 우리의 민족자산은 지켜야 할 유산만이 아닌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되어 현대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점이 상기된다. 또한 단오축제 기간 동안은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평소보다 현저히 늘어나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단오제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단오제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자본형성과 국가 홍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실질적 근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지역은 단오를 활성화시키기에 근본적으로 강릉 지역에 비해 내세울 만한 문화원형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주의 경우 문화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노력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문화콘텐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지역의 문화원형을 대체할 만한 제안과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전주단오의 연구를 통해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만을 시도하고 전주단오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만큼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를 통해 전주단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전주단오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제시하는 데 있으며, 전주단오의 지역축제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공적인 역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주단오의 지역축제 개발 연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강릉단오제의 문화콘텐츠 현황, 조직과 주체, 전주단오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이론 연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이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 보다 나은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접근 과정을 거쳐, 향후 지역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

첫째, 단오제의 현황과 조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보존회 보고서 및 인터넷 사이트, 보도자료, 통계 자료를 통해 1차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차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1차, 2차의 자료 분석을 통해 강릉단오제와 전주단오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강릉단오제와 전주단오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주단오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강릉단오제와 전주단오의 비교 분석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현황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약(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약'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수립 및 공포 함)으로 등재되었다(권소현, 2010).

강릉단오제의 제의 행사는 신에게 드릴 술을 담그면서 시작된다. 먼저 대관령 산신당에서 제를 올리고 마을에 신성시하는 나무를 모시고 국사여성향당에 머물다가 축제 전날 저녁 영신제를 지내고 남대천에 마련된 제단에 옮겨 모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린다. 단오장에서는 5일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며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영을 기원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제사를 지낸다. 강릉단오제의 제의는 유교식 제사와 무당굿이 함께 조화를 이룬 형태이다. 이 밖에 '양반'과 '시시딱딱이', '장자머리', '소매각시' 가면을 쓰고 무언의 '관노가면극놀이'를 하거나, '수리취 떡먹기', '씨름', '농악경연대회', '창포머리감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단오 다음날에는 신성시하는 나무를 태우고 서낭신을 대관령으로 모시면 단오제는 막을 내린다. 강릉단오제는 제관의 의례 이루어지는 유교식 의례와 무당들의 굿이 함께 거행되는(김재훈, 2013) 등 큰 마을축제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드는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며,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주도하에 행해지고 있다.

보존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전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경포 상설공연장에서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상설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방학기간에 운영하고 있고 넷째, 매년 12월 전승 평가 발표회를 개최해 강릉 관노가면극의 올바른 전승 보존과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섯째, 학습교재용 종이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관노가면극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1)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강릉 관노가면극은 제의적인 마을 탈춤의 한 유형이며,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큰 영향을 주었다. 타 지역의 탈놀이와 크게 구별되는 특징은 대사가 없이 몸짓과 춤으로 연희되는 무언극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연희자가 관청의 노비들이라는 점이다. 강릉 관노가면극의 토착적인 기원은 하회별신굿놀이나 동해안 별신굿과 접근성이 높는데, 이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토속적인 민속 의례와 무속 서낭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시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주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굿이었으나, 점차 인간과 인간들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예술적 탈놀이로 발전하였다. 갑오경장(1894)때 공식적으로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을 혁파함으로써 점차 관노가면극의 전승이 위축되다가(권소현, 2010) 1909년경 일제 강점기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강릉관노가면극은 김동하(1884~1976), 차형원(1890~1972)의 고증으로 1967년 1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두 사람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강릉단오제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들이 '지정문화재' 행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현재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생산 및 향유되는 문화콘텐츠는 '관노가면극'과 '다노네다노세' 공연이 대표적이다. 관노가면극 전승 내역은(김재훈, 2013) 다음 <표 1> 와 같다.

표 1. 관노가면극 문화콘텐츠 전승활동

문화콘텐츠	목적
전수교육 활동	관노가면극 강습회당 단체별로 전수조교, 예능보유자의 직접 전수 교육으로 올바른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
상설공연활동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지역의 전통문화 어울림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 제공.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들에게 방학 중 여가선용을 통해 관노가면극의 춤사위 및 전 과정을 습득하여 지역전통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체득하게하고 개인적 소질을 개발함.
전승평가 발표회	강습단체(초, 중, 고, 대, 일반) 별로 전 과정을 공연, 강습 후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전승과 보존을 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함.
학습교재용 탈 판매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지역문화를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교재용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강릉관노가면극은 총 5과장으로 제 1과장(장자마리개시)은 배불뚝이 장자마리가 장난스럽게 마당을 돌아다니며 놀이판의 분위기를 돋우는 마당, 제 2과장(양반광대, 소매각시 사랑)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사랑을 나누는 마당, 제 3과장(시시딱딱이훼방)은 험상궂은 시시딱딱이가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을 훼방 놓고 강제로 소매각시를 차지하는 마당, 제 4과장(소매각시 자살소동)은 양반에게 정절을 의심받은 소매각시가 자살소동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절정이 되는 마당, 제 5과장(양반광대, 소매각시 화해)은 오해가 풀리고 소매각시가 살아나 양반광대와의 사랑을 확인하고 모두 화해하여 함께 춤추는 뒤풀이 마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강릉관노가면극은 다른 가면극에서 볼 수 있는 신분제에 대한 풍자나 저항보다는 근본적인 단옷날의 행사와 같이 하나의 놀이로써 오락적인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풍농과 안녕을 기원하고, 지방 수호신에게 제를 지내는 의식과 연관을 지닌 서낭제 가면극의 특징을 본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다노네다노세’라는 명칭아래 진행되는 공연은 강릉단오제의 공개행사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을 하나의 공연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무대화시킨 작품으로 강릉단오제 본 행사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투어를 실시하고 있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조해진, 2014).

2) 강릉단오제 조직 및 주체

현재 강릉단오제는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가 주최주관하며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 그리고 사무국장 아래 직종별, 전문성 등을 지닌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인 축제운영의 핵심인 강릉단오제의 운영조직은 자문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축제 사무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문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학계, 유관 공무원, 언론사, 단오제보존회 및 문화단체, 행사 관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 운영조직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축제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경영관리부(경영지원팀, 공간기획팀, 홍보팀), 기획운영부(프로그램기획팀)로 구성되어 있다.

2. 전주단오 현황

1) 전주단오의 현재

전주단오는 전주에서 행해지는 단오의 세시 의례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다. 단옷날 덕진 연못에서 창포로 머리를 감고 즐기던 놀이는 1959년 6월에 단옷날(음력 5월 5일)을 ‘전주시민의 날’로 정해 제1회 축제로 열렸으며, 풍남제 중건 200주년이 되던 1967년 5월 30일 축제 명칭을 풍남제(豊南祭)라(문화체육관광부, 2016) 지정하였다.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지역 내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시민친화적인 대동 시민축제로 발전한 1984년 제26회 <풍남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해로 기록된다. 이 해부터 <풍남제>에 전주 난전을 개장하였다. 고대의 전주단오난전은 강릉단오난전보다 더 성대하고 화려했으며, 그 역사는 고려시대 중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려시대 문인, 문신이었던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의하면 단오절 성황제가 크게 거행되면 인근에 있는 진안·완주·임실 지역 사람들도 전주에 몰려들어 「단오물맛이」를 즐길 정도로 성황제가 성대하게 열렸고, 이에 난전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난전을 통해 각지의 다양한 특산물을 구할 수 있었고, 평소 집에서 먹기 힘든 귀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 몰려들었다. 서민들의 회로애락이 담긴 난전에서 교차되는 인정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이며, 이곳에서 표출되었던 놀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서민들의 해방구로서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전주의 성황제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점차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

했고 이후 일제의 잔악한 민족말살정책으로 완전히 고사되기에 이른다. 일제하에 성황제가 타도된 뒤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성황제는 복원되지 못했고, 결국 난전의 전통 또한 회복되지 못하다가 1984년 <풍남제>를 통해 부활했다. 부활된 난전은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뿌리를 일깨우는 교육장이 되었다(김용호, 2003). 이후 2006년 '전주 풍남제'에서 2007년 '전주단오 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주단오는 전주역사와 문화의 대표 지역인 전주한옥마을과 향시의 시초인 전주 남부시장 일대를 수려한 자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진행한다. 전주의 성황신을 모시는 성황제를 시작으로 하여 전주와 전북지역의 무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주 난장, 민속놀이, 천인 비빔밥 잔치, 문화재 시연을 진행한다. 과거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포함된 놀이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다 최근에는 전주음식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언못 물맛이가세'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2019 전주단오의 주요 콘텐츠 행사는 크게 세 가지의 취지 아래 기획되었다.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 충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민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험 및 시연 프로그램을 적극 배치하여 재미와 볼거리를 강화시켰으며 셋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9 전주단오의 축제 프로그램(전주단오, 2020)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2019 전주단오 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단오프류체험	1. 단오물맞이	창포물에 머리감기, 세수하기 창포족욕 체험
	2. 단오시절음식	단오음료체험, 떡살문양찍기 단오약쑥인절미 떡메치기
	3. 단오화장	장명루(오색실 팔찌만들기) 체험 단오부점찍기 얼굴그림그리기
	4. 단오선	단오부채만들기 체험, 단오 부채명인전
	5. 단오공예체험	부채그리기체험, 단오한지부채, 짚풀공예체험, 한지&상감 드림캐처, 천연향수만들기 등
	6. 단오소원	단오등에 소원지 달기
2. 단오 겨루기	1. 단오씨름대회	씨름대회
	2. 민속놀이 겨루기	그네뛰기/웃놀이 대회
	3. 가족 웃놀이 겨루기	대형 웃놀이 경연
	4. 전통놀이체험 & 이벤트	웃놀이, 제기차기 등 겨루기
3. 공식행사	전주단오 기념식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4. 공연 / 더불어행사	1. 단오프류공연	
	2. 단오건강체험	
	3. 어르신 장수 사진촬영	
	4. 우리동네 프리마켓	
	5. 홍보마당	
	6. 세계민속춤페스티벌	

(전주단오, <http://jjdano.dothome.co.kr>, 2020)

전주단오는 다양한 행사로 빈틈없이 이어졌지만 '전주단오'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오 물맞이와 전통 민속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주단오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전주단오만의 특색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축제에서도 볼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가 많았고, 기존 방식을 답습한 프로그램이었다. 역점을 둔 민속놀이 체험과 농경생활 체험조차 별다른 설명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

되어 이를 통해 전주단오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2) 전주풍남제전위원회

1959년 6월 2일 단오날 음력 5월 5일을 ‘전주 시민의 날’로 제정하며, 그 후 1995년 3월 19일 사단법인 제(문화체육부 292호) 구성으로 전주풍남제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전주풍남제전위원회는 1997년 4월 1일 ‘전주 풍남 문화예술진흥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송기태 연구위원장 외 19명을 위촉시켰다. 연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문치상 이사장이 취임을 했고, 김남규, 김년임, 문치상, 선기현, 주명준, 신동화, 양복규, 송화섭, 홍성윤, 김남곤이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연구위원장으로 김남규가 취임하였다. 2007년 7월 20일 정관 4차 개정과 함께 ‘전주풍남제’에서 ‘풍남문화법인’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3) 전주단오의 주요성과

전주단오의 축제 성과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간략하게 <표 3>로 정리하였다.

표 3. 전주단오 축제의 성과

년도	관람객	축제성과
2016	2만 여명	단오풍류체험(단오물맞이 등), 단오겨루기(씨름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단오풍류공연 등), 부대행사(단오건강체험 등), 특별행사(전국풍남춤페스티벌 등)
2017	2만 여명	단오풍류체험(단오물맞이 등), 단오겨루기(씨름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단오풍류공연 등), 부대행사(단오건강체험 등), 특별행사(전국풍남춤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2018	2만 여명	단오풍류체험(단오물맞이 등), 단오겨루기(씨름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단오풍류공연 등), 부대행사(단오건강체험 등), 특별행사(세계민속춤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2019	정확한 통계치 없음	단오풍류체험(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등에 소원지달기, 오색실 팔찌 만들기, 단오 부적 찍기, 단오 약쑥 인절미 떡메치기 등), 단오겨루기(전주시 35개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네뛰기, 옷놀이), 문화예술행사(단오풍류공연 등),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비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취소,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취소,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취소		

4) 전주단오의 문제점 분석

현재 전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대부분 전주시에서 획일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전주단오의 경우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고 있지만, 행정업무는 시에서 대부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 주도형 축제의 단점은 관료적 체제에서 비롯된 문제 접근 방식이다. 이는 축제의 결과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만 판단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되고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축제의 평가도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다. 전주단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내용이 첨부된 신문을 발췌하였다.

3년 만에 재개된 전주단오는 시민대동제 혹은 전래풍습재현행사로서의 기능성을 보여줬으나 문제점은 여전했다.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콘텐츠는 없었으며 주요 관람객층을 인지하고 공략하는데 미흡했다. 이를 발전시킬 방향이나 대안이 부족해 보인다. 가짓수만 많을 뿐 전주단오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성수로 여겨졌던 덕진연못 창포물에서 착안, 물맞이를 전면 에 내세웠으나 수질이 오염돼 창포원액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이로 인해 체험 인원이 회당 10명 이내인 등 키워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공략층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로 찾는 연령대는 노년층이고 개최된 날은 평일인데 젊은 층들이 관심을 보일 프리마켓을 도입, 성격에 맞지 않는 행사가 하나 늘고 별다른 성과도 없다는 판단에서다(전라일보, 2016).

전주단오는 대표 프로그램인 물맞이 시설을 늘리면서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나 정체성을 드러내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단오 관련 프로그램이 꽤 많았고 일부에는 해설도 곁들였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방문객 2만 여명임을 고려하면 회당 5명 내외가 참여하는 체험(물맞이 제외)은 부족한 편이다. 나아가 전주 단오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 단오라는 이름을 되찾은 지 10여년이 됐음에도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고 색깔도 불분명하다는 것. 비현실적인 예산(7,600만 원)도 거론됐다(전라일보, 2017).

전주 단오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올해 행사는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보단 단오의 특성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강화해야 한다. 또한 60여 년간 전주 시민과 함께해온 세시풍속인 만큼 그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적 콘텐츠를 도입, 젊은층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새전북신문, 2019).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전주단오 축제의 문제점은 첫째, 객관성 없는 통계 둘째,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며 셋째, 일관성 없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넷째, 지역상품의 부재 다섯째, 전주 단오만의 대표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축제의 차별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섯째, 축제의 목적에 대한 홍보부족 일곱째, 축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덟째, 축제의 조직이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아홉째, 축제 조직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네트워크가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전주 단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전주단오 축제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전주단오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박인철, 2009)이 있다.

첫째, 객관성 없는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축제의 관광객 숫자가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된 적이 있다. 지금도 가능성보다는 현재 관광객 수에 무게를 더 실어 주는 것이 관광정책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풍남문화법인 측에서는 정확한 방문객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객관적인 조사에 의한 조정이 어려워 해마다 일정 비율씩 더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부정확한 통계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주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전주단오 축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수동적인 참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사장 부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축제 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활용은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화, 산업화, 이미지화는 물론이고 향후 축제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 축제의 기획이나 운영 또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운영 주체 단체의 교섭 결과나 단체장의 평가 기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된다.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 기획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관광객 유치 및 조기 홍보를 위한 사전 마케팅 활동은 불가능하다. 선 기획 후 예산 심의라는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풍토가 아쉽다. 또한 별도의 드러나지 않는 일부 프로그램이나 홍보에 대한 예산들을 인정해 주는 관행 등 주관하는 협회 측의 안일한 태도 역시 차단되어야 한다.

넷째, 홍보 부족 및 차별성을 보완해야 한다. 대상과 시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호 방식의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홍보 기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지역에서 수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해당 지역주민과 관 이외의 외지인은 물론 이웃한 기초 자치 단체 지역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각 사회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적재적소에 홍보 전략을(박인철, 2009)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3. 각 단오제 콘텐츠 비교 분석 및 단오 관련 현황

표 4. 각 단오제별 현황

		강릉단오제	전주단오
축제별 현황	방문객수	109만 여명	2만 여명
	경제파급 효과	1,750억 원	없음
	조직 및 주체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풍남문화법인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 방안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1,75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17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025억 원, 소득유발효과 18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3억 원, 세수유발효과 57억 원 등이었다. 방문객은 지역 주민 58만 명, 관광객 51만 명 등 총 1,090,000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로 비슷했다.

반면 전주단오는 경제 파급효과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풍남문화법인의 전문 인력 부재와 저조한 예산 지원 등은 향후 단오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풀어야 될 과제로 남게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는 관노가면극이다. 강릉단오제 때 열리는 관노가면극은 전국 유일의 무언가면극으로 전통 극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대개의 가면극이 양반을 풍자하고 모욕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나 서민의 저항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관노가면극은 도덕성과 사회규범을 바탕으로 신분 계층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강릉단오제보존회, 2020). 이러한 대표적인 콘텐츠인 단오 문화를 사계절 내내 한눈에 보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강릉단오문화관이다. 이 문화관은 전수교육과 상설공연을 통해 강릉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보호하고 전승하여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표 5. 단오제별 문화콘텐츠 현황

		강릉단오제	전주단오
문화 콘텐츠 현황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관노가면극, 다노네다노세	창포 체험행사
	유래 및 전승	하회별신굿놀이나 동해안 별신굿	고려시대 이규보-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주요성과	문화관광, 도시 이미지	없음
	콘텐츠 특징	몸짓과 춤으로 연희되는 무언극	없음
	전승현황	전수교육, 상설공연, 전승평가 등	없음
	문제점	야간 상설 프로그램 개발 미흡 및 공연장 진행요원 필요	전주단오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이와 같이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지정될 만큼 적합한 문화원형을 가지고 있으나 전주의 경우는 문화원형의 부재로 말미암아 내세울 만한 문화콘텐츠가 없다. 전주단오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원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전통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전주만의 특색을 살려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콘텐츠를 전주단오에서도 수용한다면 지역 간의 활성화된 연계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전주단오 지역축제 개발을 위한 분석

1. 전주단오 개발을 위한 콘텐츠 SWOT 분석

오늘날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여행 행선지에서 개최되는 축제시기에 맞춰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단순히 원하는 장소를 가는 여행이 아닌 테마 여행이나 문화 관광을 하려는 목적성 여행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전주시도 전주한옥마을에 힘입어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에 오면서 전주단오를 효과적으로 홍보, 발전시켜야 할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주단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단오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전주단오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전주단오를 대표할 만한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관련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주시와 풍남문화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적 업무처리의 한계를 엿보게 된다. 전주단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주단오 연구위원회가 2014년에 신설되어 시의원, 전통 문화원 관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이 떨어져서 지역축제 전문 인력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전주단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강릉단오제 지역축제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아울러 전주단오를 대표할 만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전주단오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전주시 SWOT 분석

표 6. 전주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 전주지역 숙박산업 활성화		1. 콘텐츠산업 인프라 부족	
2. 전통 문화, 교육 중심지		2. 전반적인 지역축제 문화구조 취약	
3. 호남, 서해안 뛰어난 접근성		3. 관광자본 부족	
4.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서 행정,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중심지		4. 지역특화 상품 발굴 및 홍보마케팅 미흡	
5.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	
1.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발전기회		1. 타 지역으로부터 경쟁력	
2. 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 수용		2. 타 지역지자체 공격적인 마케팅	
3. 전주 종합발전계획 도시 성장축 개발		3. 새만금 상류지역으로 수질보전 기준 확보에 따른 개발 여건 저해	
4. 여가 수용의 증대로 전통예술, 관광에 대한 가치 증대		4. 지역의 중심성 부재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	
5. KTX전주역, 호남고속도로 등을 통한 수도권 및 대전권 등의 접근성 용이			

1) 강점(Strength)

전주시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전통문화, 교육 중심도시로서 전라북도의 전략사업인 문화, 영상, 관광산업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주는 지리적으로 남서측, 전라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88올림픽 고속도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 어느 지역이나 3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렇듯 전주시는 호남, 서해안지역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지역으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숙박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현재 전주지역의 관광호텔은 2018년도에 1,200개의 객실이 추가로 지어져 2200여실의 호텔급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 포화를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2017 FIFA U-20, 국가대표 A매치 유치,

각종 전국 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이며,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유스호스텔 등(전주도민일보, 2016)다양한 숙박산업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2) 약점(Weakness)

축제에 있어 재정 확보와 자립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반적인 지역축제의 문화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홍보 전략수집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 전담반을 가동하고 콘텐츠 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기회(Opportunity)

전주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혁신지향적 발전전략의 일환인 문화생태 강조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전주시는 빠른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로드맵이 필요하였으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하여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하였다.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하여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형성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품격 있는 한국적 전통문화를 육성하고자 함이며, 전통문화상품화, 공연문화예술 활동의 기능 공간으로 전주지역만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발전기회, 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 수용, 전주 종합발전 계획도시 성장축 개발 관련 계획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전주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2023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이용도 수월해 향후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5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2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에 수요와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시간 단축 효과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를 찾는 관광객 수요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 위협(Threat)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민의 관심을 잃게 되고 결국 쇠퇴하게 될 것이다. 타 지역의 지자체는 그 지역을 브랜드화 하여 축제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처럼 축제에 지역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전주시 시사점

지역축제 개발 및 수용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통한 접근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주시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시는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지역으로, 관광객을 흡인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에 위치해 놓여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객 유입에 초점을 맞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전주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주단오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통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주지역만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전통문화상품화, 공연문화예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주시가 타 지역으로부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전주단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홍보 전략수집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전주단오 SWOT 분석

표 7. 전주단오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 덕진공원 내 창포군락지 2. 전주단오를 운영하는 법인 존재 3. 환경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1. 창포 외에 콘텐츠 부재 2. 풍남문화법인의 운영 인력 부족 3. 지자체 행정적 지원 부족 4. 전문 진행 인력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1. 전주단오의 정책적 대중화 2. 전주단오의 상품화 3. 단오문화 계승	1. 단오 유사축제-국가무형문화재 (강릉, 자인, 법성포)단오제 등

1) 강점(Strength)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는 전주단오는 전주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에 하나이다. 전주단오를 주관하는 풍남문화법인은 연구위원회를 마련하여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주단오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의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덕진공원 안에 있는 창포군락지와 연화정을 들 수 있다. 창포군락지는 단오절에 머리를 감고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활용하여 단오 창포물을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으며, 연화정은 등불축제와 접목해서 야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약점(Weakness)

전주단오의 약점으로는 전주단오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부족하며 전주단오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풍남문화법인의 전문 인력 부족과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전주단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있으나 블로그는 2017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경우 형식적인 소개만 나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3) 기회(Opportunity)

전주시는 민속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매년 단오를 기념하기 위해 전주단오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주단오를 대중화된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주단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주단오를 상품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4) 위협(Threat)

현재 단오축제는 전주단오뿐만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 경산자인단오제, 영광법성포단오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전국적인 단오축제는 관광시장 확대를 유발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하면서 유사 축제의 증가를 가져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주단오는 다른 단오축제에 비해 획일성, 유사

성, 반복성, 정체성의 부재로 축제 발전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 전주단오 시사점

지역축제 개발 및 발전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통한 접근 과정을 거쳐 전주단오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주단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단오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환경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덕진공원 안에 있는 창포군락지와 연화정을 활용한 등불축제, 창포물맞이 축제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전주단오를 개최하고 있는 풍남문화법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민간 전문 인력을 축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외부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 인센티브 제도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축제 감독을 비롯하여 축제 감독을 보좌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오문화 계승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단오를 ‘전주 4대 문화축제’로 묶어 놓아, 단오행사는 마치 전주 축제의 일부분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변질됐다. 다시 전통성 있는 전주단오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전주단오축제 개발을 위한 SWOT 분석

표 8. 전주단오 축제 개발을 위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 덕진공원-창포군락지	2. 전주지역 숙박산업 활성화	3. 전통, 문화, 교육 중심지	4. 전주단오를 운영하는 법인 존재
1. 대표할만한 콘텐츠 부재	2. 주민 축제 참여성 부족	3. 법인 인력 전문성 부족	4. 전반적인 지역축제 문화구조 취약
5. 지자체 행정적 지원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	
1. 전주한옥마을-전통문화와 전주의 먹거리	2. 관광객의 흡인	3. 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 수용	4.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발전기회
5. 단오문화 계승		1. 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지원	2. 경기침체로 수요자 감소
		3. 차별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부족	4. 유사축제-(강릉, 자인, 법성포) 국가무형문화재 단오제 등

1) 강점(Strength)

전주단오의 강점으로는 전주단오를 운영하는 풍남문화법인이 구축되어있다는 것이다. 전주단오를 주관하는 풍남문화법인은 연구위원회를 마련하여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를 진행한다. 또한 축제가 개최되는 덕진공원은 공원 내에 창포군락지가 조성돼 있다. 풍남문화법인은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 창포군락지를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단오 풍속과 부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2) 약점(Weakness)

전주단오의 약점은 성수로 여겨졌던 덕진 연못 창포물에서 착안한 물맞이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수질이 오염돼 창포원액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회당 10명 이내로 체험 프로그램을 키워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창포 물맞이 외에도 전주단오 대표콘텐츠인 부채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형식적이고 깊이가 떨어지는 전시와 체험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콘텐츠들도 작고 내실이 없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오의 특성을 살리는 콘텐츠로 난전(亂塵)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기회(Opportunity)

전주시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전주단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발전기회, 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 수용, 전주 종합발전계획 도시 성장축 개발 관련계획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실천전략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들의 문화를 존속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인 상품과 함께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와 개발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단오를 대중화된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위협(Threat)

전주단오의 위협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수요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주시의 전주단오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전주단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단오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타 지역의 지자체는 그 지역을 브랜드화 하여 축제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처럼 축제에 지역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난전 특화거리 조성이나 특수계층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SWOT분석을 통한 전주단오 전략과제

표 9. 전주단오 SWOT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전주지역의 지리적 요건과 교통의 발달, 전주의 전통문화와 먹거리 등을 통한 관광객의 흡인과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유도	전주한옥마을 문화와 전주시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콘텐츠 개발
위협 (Threat)	덕진공원 내의 창포군락지를 통해 타지역 축제와의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 전주 단오를 운영하는 자체 법인을 통해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이를 통한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극복	대표적인 콘텐츠 부재의 개발과 함께 경쟁력 강화, 법인 및 진흥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전주단오의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을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회를 활용하여 강점을 부각시키는 SO전략으로 전주지역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문화 및 먹거리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과 숙박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강점 요인을 통해 위협을 극복하는 ST전략으로 전주 덕진공원 내에 조성된 문화자원인 창포군락지를 활용하여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단오의 풍속과 부합하여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 산하 조직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대행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단오는 법인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축제 운영의 성과가 분산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 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지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WO전략으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계

획과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주단오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WT전략으로 앞서 제시한 전주단오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타지역의 유사축제와 차별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축제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인의 전문 인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6) 전주단오 축제 개발방안과 시사점

지역축제 개발 발전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전주단오의 SWOT 분석을 통한 접근 과정을 거쳐 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전략사업인 문화, 관광산업의 기반을 갖추어 다양한 숙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는 숙박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라 판단된다.

둘째, 전주단오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덕진공원 안에 있는 창포군락지는 창포가 무성한 연못가에서 물맛이 높이를 하였던 곳으로 창포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전주단오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 상품이 될 것이며,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도 생길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전주단오 브랜드 자산을 높이고 축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고취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시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IV.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강릉단오제의 형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주단오와 비교 분석한 뒤 전주단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전주단오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축제 개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만의 환경자원과 문화자원을 토대로 특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콘텐츠를 전주단오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활성화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SWOT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전주단오 콘텐츠 개발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주지역만의 환경자원과 문화자원을 토대로 특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전주단오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주단오를 주최하는 지자체와 주관하는 풍남문화법인은 전주지역의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단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역축제 콘텐츠 개발이 아닌 전주단오의 역사성을 담보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단오의 축제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구성과 역사적 근거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조직을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인 강릉단오제의 문화콘텐츠 개념을 제시하면서 전주단오 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전주단오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원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전통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전주만의 특색을 살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활용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단오제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성격, 유형 등을 파악한 후에 SWOT분석을 통해 결과를 유추하고 분석하였다. 전주단오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개발 및 수용 방안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단오의 시기적인 방향으로는 강릉단오제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는 주말 집중형 전략으로 주말 동안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전주단오의 경우 2019년엔 6월 7일(금)~6월 8일(토), 2018년엔 6월 17일(일)~6월 18일(월)에 개최하여 관광객 유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개최기간이 줄어든 이유에는 1990년대 초의 10억에 가까운 예산 규모에서 8천 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개최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 행사 주관 기관 역시 중간에 바뀌기도 하면서 전주단오의 역사는 변화무쌍 그 자체였다. 선인들의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한 개최기간의 보완과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한 주말 집중형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주단오의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풍남문화법인의 운영에서 단계별 특성과 운영원리에 입각하여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집행이 원활해야 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정립되어서 축제조직의 객관화된 조직구조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각 조직구조에는 전주단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나 관계자가 배치되고 권한과 역할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체계가 구축이 되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 분담의 연계가 부문별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기능하게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주단오만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축제와의 차이점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독창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어 전주단오만의 축제가치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사한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민의 관심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쇠퇴하게 될 것이다. 전주단오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방향으로는 전주단오가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음을 알리고, 지역축제로써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방안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콘텐츠를 전주단오에서도 활용 및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지역 간의 활성화된 연계사업을 고려한 전주단오 문화콘텐츠 개발로써 의미가 클 것이다. 이 연구가 전주단오 문화콘텐츠 개발과 수용 방안 관련 초기 연구로 의미를 갖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 이후 전주단오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릉시의회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www.gncl.go.kr, 2020년 10월 22일 검색.
- 권소현, 김익한(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4**, 173-214.
- 김용호(2003). 스페인 세비야의 4월 축제와 전주 풍납제 : 원형상실의 문제점. ECIC 전문연구원.
- 김재훈(2013). 강릉단오제의 관광효과 증대를 위한 세부 방안 연구. 강릉단오제 학술지 우수논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festiva>
- 박인철(2009).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사)강릉단오제보존회(2018). 강릉단오제 평가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조직도. <https://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151>, 2020년 10월 25일 검색
- 옛 명성 회복 방안 모색 서둘러야(2017. 5. 31.).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589>.
- 전주 단오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2019. 6. 6.).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423>.
- 전주단오. 대표프로그램. <http://jjdano.dothome.co.kr>, 2020년 10월 30일 검색
- 전주, 2년 내 호텔객실 1,200실 늘어난다(2016. 4. 27.).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49>.
- 전주시청. 전주시도시기본계획. <http://www.jeonju.go.kr/index.9is>, 2020년 11월 3일 검색
- 정체성 대변 핵심 주제 발굴(2016.6.12.).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286>.
- 조해진(2014).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고찰. *스토리&이미지텔링*, **8**, 97-126.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Festival through Jeonju Dano Cultural Contents* - Focused on Gangneung Dano-je and Jeonju Dano -

Youngsoo Yoo** Chaehyun Lee*** sangmyung University

Youngsoo Yoo* · Chaehyun Lee** Sangmyu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for Jeonju Dano to be developed as a regional festival by utilizing it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compare with Gangneung Dano-je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o analyze characteristics between them, and to find improvements for a better festival. So for systematic analysis of the local festival programs, this study used SWOT analysis. It aims to present a utilization plan of cultural contents that could be applied to local festivals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Jeonju City from the aspect of cultural resources with SWOT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of strength and collected the status of cultural resources available for utilization. We set the direction of local festiv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llected cultural resourc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ourist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considerable value in that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ultural content programs, which are major parts of the growth of local festivals, and also presents specific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rough systematic analysi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this study to the following. Currently,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related to Jeonju Dano among domestic literature, so it is somewhat difficult to guarantee the results.

Key words : Jeonju Dano, Regional Festival, Cultural Contents, SWOT Analysis

논문투고일: 2020.11.30

논문심사일: 2021.01.04

심사완료일: 2021.01.18

* This work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after extracted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in 2017.

** Ph. D in Art, Sangmyung University

*** Completion of a Ph.D. program at Sangmyung University